

류큐 왕국 시대 선장의 저택 ‘아사센도론’

-변영을 말해주는 돌담과 힌푼: 마을 지정문화재

자마미지마 섬은 류큐 왕국과 중국의 교역 중계지였으며, 이곳에는 교역선 선장의 저택이 있었습니다. 주위의 돌담은 커다란 산호석회암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은 만들 수 없는 매우 귀중한 건축물입니다. 정면의 돌담은 ‘힌푼’이라고 하며, 내부를 가리고 마귀를 쫓는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돌담은 높이 2m, 폭이 8m나 되어 저택의 크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변영을 오늘날에도 짐작할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입니다.

류큐 왕국은 중국과의 교역으로 번성했습니다. 당시 자마미손은 교역의 중계지로서 중요하여 바다와 관련한 일에 숙달되어 있었던 섬의 선조들은 선장, 선원으로 활약했습니다. 특히 아사 마을의 바로 앞에 있는 “아고노우라”는 평온하고 깊은 만으로서 배를 움직이기 위한 바람을 기다리는 정박지로서 매우 번성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